

300-5-128 신문조서(權榮台 외 33명 치안유지법 위반) 10

■ 權榮台 외 33명에 대한 치안유지법 위반사건 기록 수록(문서 300-5-119부터 계속)

- 安炳春 외 13명의 구류갱신 결정과 送達이 1934년 10월 23일에 있었고, 小松減五郎의 변호인 선임계가 제출되었다. 1934년 11월 12일 예심판사의 1회 被告人 신문조사가 安炳春·李丙驥·安三達·李順今·李景仙·鄭七星·李鉉相 등에 게 실시되었으며, 12일 崔小福·邊雨植·任澤宰·南萬熙·鄭龍山·金三龍·鄭龍山의 피고인 신문조사가 있었고, 鄭龍山의 陳情書가 제출되었으며, 安炳春 외 13명의 구류갱신 결정과 송달증서가 있다.
- 1935년 3월 18일 鄭龍山의 보석신청이 있어 판사가 검사에게 의견을 구했으나 불허결정이 있었고, 安炳春 등의 구류갱신과 형무서 재감결정과 송달증서가 보내졌다.
- 1935년 4월 30일 安炳春의 2회 피고인 신문조사가 있었고, 5월 1일 李丙驥 2회, 安三遠 2회, 2일 李景仙 2회, 李順今 2회, 3일 鄭七星 2회, 李鉉相 2회, 4일 崔小福 2회, 6일 崔小福 3회, 邊雨植 2회의 피고인 신문조사가 진행되었다. 5월 7일 南萬熙 2회, 任澤宰 2회, 8일 鄭龍山 2회, 李百萬 2회, 9일 金三龍 2회의 피의자 신문조사가 진행되었다. 이들의 前科照會와 指紋이 採取되어 收錄되어 있다.